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3월 21일(주일) 제1336호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3월 22일~27일,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
3월 29일~4월 3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아주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새벽기도회가 막 오른다.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는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를 주제로 3월 22일(월)부터 3월 27일(토)까지 진행된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은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이어진다. 시간은 오전 6시이다. 새벽기도회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생중계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서 허용하는 인원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예배당 예배로 참석할 수 있다.

CGNTV가 주최하는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출연한다. 3월 22일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 23일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24일 정주재 목사(향상교회 원로),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25일 유병국 선교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26일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원로),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27일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와 사회(기도인도)를 맡는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에서는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낙태반대 및 생명수호운동) 사역자들이 설교한다.

3월 29일 박상은 박사(샘병원장), 29일 김현철 목사(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설립), 31일 이종락 목사(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교회), 4월 1일 이봉화 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2일과 3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뜻 깊은 새벽기도회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



2021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포스터.

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개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www.blooddonation.co.kr)가 개설됐다. 더 많은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에는 캠페인 소개와 참여 교회 및 단체 안내, 헌혈 참여 인증, 헌혈 참여 스토리 나눔 등의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다. 아래의 쿼알코드로 접속할 수 있다.

부활절(4월 4일)까지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헌혈 참여 인증을 하고, 참가 소감을 남기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캠페인 이벤트는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과 별도로 진행된다.

/ 홍하영 기자



한일 양국이 함께 부른 '소망의 노래'

러브소나타 영상 한일 합동기도회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러브소나타 영상 한일 합동기도회' (이하 한일 합동기도회)가 열렸다. 한국(서빙고 온누리교회)과 일본(동경 온누리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 성도들이 예배당 예배,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한국어, 한국 성도),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일본어, 일본 성도), 온라인(Zoom, 해외비전교회, 러브소나타 실행위원회 등)으로 참가했다.

한일 합동기도회 열기가 뜨거웠다. 3월 1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당 예배에 30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 참여 인원이 1만 명(한국 8천 명, 일본 2천 명)을 넘었다. 온라인(Zoom)으로도 80여 명이 참가했다.

한일 합동기도회는 러브소나타로 하나 되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한일 양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기도로 다시 한번 뭉치는 축복의 장(場)이었다. 16일(화) 이재훈 담임목사, 17일(수) 시미즈 쇼조 목사(다카이시성서교회), 18일(목) 나카데 마키오 목사(구마모토나사렛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16일(화) 한일 합동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옴의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옴은 고난 앞에서 방향하기는 했지만 참된 회개로 회복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한일 합동기도회에서는 시미즈 쇼조 목사(다카이시성서교회)가 '치료하는 광선을 받라니니'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시미즈 목사는 "주를 경외할 때 치유의 빛이 임할 것"이라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라"고 권면했다.

18일 한일 합동기도회에서는 나카데 마키오 목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나카데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한국과 일본이 계속 교제하며 협력한다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래 집사(중종로공동체)는 "한일 합동기도회를 계기로 러브소나타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했고, 오카 사요리 집사(일본어예배)는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하나 되어 기도한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Pray for 미얀마

“미얀마 국민들에게 힘이되어 주세요”

현재 미얀마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제 고향에서 하루만에 46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외국 소수 민족을 용병으로 내세워 국민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미얀마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가 되도록, 반복적인 군부통치가 완전히 종식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미얀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모델 삼아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하나님의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난민과 노동자로 와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주시시오.

/ 싸잉빠 전도사(김포M센터 미얀마공동체)

당회

3월 27일(토) 오전 7시
서빙고 비전홀

제직회

3월 28일 2부 예배 후
양재 사랑홀

공동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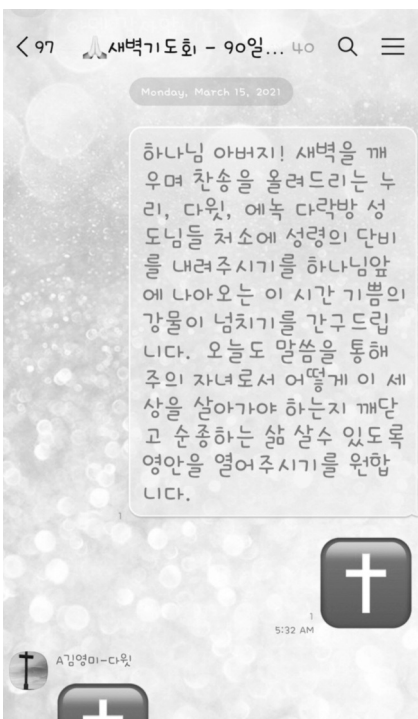
3월 28일 3부 예배 후
양재 사랑홀

*주요안건: 결산보고, 감사보고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평안과 위로, 새 힘을 주는 ‘90일의 기적’

고봉옥, 김선경, 이원희 성도의 눈물겨운 고백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하며 평안과 위로, 힘을 얻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선경 성도(신용산공동체)가 보내온 단체채팅방 화면,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고봉옥 권사(중종로공동체) 가족들, 이원희 권사(관악금천공동체).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90일의 기적이 주는 은혜가 배가 되고 있다. 성도 개인과 가정마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있다.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평안과 위로, 새 힘을 얻고 있다는 성도들의 고백도 눈물겹다.

고봉옥 권사(중종로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가정에 평안이 스며들고 있다.

“제 아들이 1급 지적장애인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좋아하던 봉사활동과 성경공부도 마음껏 못하게 됐고요.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화가 거짓말처럼 줄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아들이 가끔 관심받기 위해 남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화가 나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서 마가 복음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화가 좀처럼 나지 않더라고요.”

고봉옥 권사가 90일의 기적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온 가족이 함께 새벽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가정에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90일의 기적을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새벽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치료하느라 매일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큰 기쁨입니다. 아들 때문에 제가 집에 매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들 덕분에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김선경 성도(신용산공동체)는 지난해 12월 어머니를 폐암으로 떠나보냈다.

“18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보낸 시간이 길어서 이참에 한국에 정착하고,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어머니를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한국 정착, 동생 전도,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등으로 김선경 성도의 마음에 부담이 많았다. 묵직한 마음을 안고 새해를 시작한 김선경 성도에게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은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고 있다. 김선경 성도는 90일의 기적 공동체 부팀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단체채팅방에 짧은 기도문과 링크를 공유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가가 주르륵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서 공동체와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 덕분에 취업도 잘됐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동생 부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입니다.”

“살아도 축복이요, 죽어도 축복입니다”

이원희 권사(관악금천공동체)는 암 투병 중이다.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그녀에게 90일의 기적은 새 힘과 위안을 공급해주는 통로이다. 이원희 권사는 올해 나이 71세다. 늦은 나이에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성실히 일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원희 권사가 그 열심히 하던 요양보호사 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게 늘 아쉬웠습니다.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일을 정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부터 신청했습니다.”

이원희 권사는 교회 생활이 너무 좋고 재미있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웠다. 은혜가 담뱃 담겨 있었다. 매주 양육자와의 만남도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쳤다.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또 닥쳤다. 건강문제였다. “처음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할 줄 알았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아프더라고요.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더라고요.”

큰 병원에서 초음파검사와 CT촬영을 했다. 큰 병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체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간이랑 폐까지 전이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이 아예졌다. 마흔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다. 이원희 권사는 지금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암 선고를 받고 정말 힘든 시기에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더라도 감사와 사모함으로 열심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권사는 항암치료를 고통을 이겨내는 새 힘을 90일의 기적에서 얻고 있다.

“항암주사를 맞고 너무 아플 때 성경책을 펼쳤더니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을 더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었다면 하루 한 장도 못 읽었을 텐데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를 들으면서 읽었다니 하루 분량을 거뜬하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고도 제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말씀 덕분입니다. 제 목숨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생각했더니 이상하리만큼 평강이 임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

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살아도 축복이요, 죽어도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 정현주, 김명선 기자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3월 10일~16일)

· 죽음의 그림자 같은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여호와께 구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한 날입니다.
/ 김경희 권사(여의도공동체)

·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다.” 이 말씀을 흘려듣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머리로는 알지 못하고, 삶에서 겸손하게 저를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 송현진 성도(강남D공동체)

·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모두가 내 문제나 나라의 문제들을 위해 결국 내가 편안하고자 금식했던 기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 이경화 집사(관악금천공동체)

·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은 만군의 나 여호와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인만큼 내가 주인 삼는 것을 돌이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보자.
/ 차정선 집사(경기A공동체)

·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를 비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취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조수현 성도(일산공동체)

· 주기도문을 써보며 구절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완벽한 기도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 김은영 성도(서빙고공동체)

·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 김진숙 성도(과천의왕공동체)

·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에게 허락된 것 같이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 기정민 성도(강남D공동체)

· 순간순간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에 급급하여 주님이 아닌 세상의 법에 무릎 꿇는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라는 삶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 이윤석 순장(경기A공동체)

·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
/ 임미리 자매(이수공동체)

·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작은 일에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 김민지 자매(여호수아공동체)

· 모두가 겪는 코로나 시대이지만 반응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변화의 기적이 되길 기도합니다.
/ 한숙경 성도(일산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두 번, 세 번, 네 번... 끝나는 날까지!”

김소윤, 박철훈, 이윤철, 허경 성도의 헌혈 열정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90일 동안 이어지는 생명나눔의 기적이 끝을 향해가고 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헌혈의 집을 찾고 있다. 3월 18일 기준으로 온누리교회 성도 802명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만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는 귀한 간증이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사연이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두 번 이상 참가한 성도들의 이야기다. 김소윤 자매(여호수아청년부), 박철훈 집사(인천 온누리교회), 이윤철 성도(OEM공동체), 허경 집사(서초A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김소윤 자매는 건강이 허락할 때마다 헌혈하고 있다.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그 마음으로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했다.

“저는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빈혈이 있어서 몸 상태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헌혈의 집까지 갔다가 못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헌혈하는 날짜가 다가오면 무작정 헌혈의 집을 찾아갑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피밖에 없거든요(웃음). 헌혈은 제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김소윤 자매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두 번 참가했다. 두 번째 헌혈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

“90일 동안 생명나눔의 기적에 두 번 참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 이후 두 달이 지나서 헌혈의 집을 찾았는데 감사하게도 헌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명나눔의 기적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헌혈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제 작은 나눔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의미가 있는 헌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박철훈 집사에게 헌혈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는 레위기 말씀을 마음에 품고 헌혈의 집으로 향한다.

“저에게 헌혈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헌혈을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에 피가 없

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만큼이나 귀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헌혈하고 있습니다.”

박철훈 집사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두 번 참가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사실 헌혈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횟수를 세지는 않았는데 생명나눔의 기적은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귀한 사역에 두 번이나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헌혈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일을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개인의 선행으로만 생각했던 헌혈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이윤철 성도는 아내의 걱정 어린 핍박(?)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눔의 기적에 세 번이나 참가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네 번째 생명나눔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헌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내가 걱정이 많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한다고 하니깐 잔소리하면서 핍박하더라고요(웃음). 저는 성분헌혈을 하고 있어서 90일 동안 여섯 번 정도 헌혈할 수 있었는데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세 번밖에 못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생명나눔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허락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생명나눔의 기적에는 아내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이윤철 성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헌혈을 의무감에 의한 봉사활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은 예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



생명나눔의 기적에 두 번 이상 참가한 김소윤 자매(여호수아청년부), 박철훈 집사(인천 온누리교회), 이윤철 성도(OEM공동체), 허경 집사(서초A공동체).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경 집사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으려고 헌혈을 시작했다. 헌혈하는 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 헌혈 날짜도 정했다.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뭐하다 왔니?’라고 물으시면 딱히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헌혈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짐이 습관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헌혈하고 있습니다. 저는 2주에 한 번 수요일에 헌혈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도 네 번이나 참가했습니다.”

허경 집사가 80번째 헌혈을 앞두고 있다. 80번째 헌혈도 생명나눔의 기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허경 집사가 아직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제가 계속 헌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말로 다 못하는 큰 기쁨 때문입니다.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나눔 중에서도 가장 귀한 나눔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생명나눔의 기적과 기

쁨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자 소감

“주삿바늘이 무섭다는 핑계로 헌혈을 외면했었는데 사랑이 부족해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 차승희 성도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 프로젝트 덕분에 결혼 후 처음으로 부모님과 아내와 함께 헌혈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41번째 헌혈까지 건강 허락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헌혈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우리 아내 고맙고 사랑해요.”

/ 김민 성도

“올해 처음 순종했는데요. 오랜 기간 미뤄둔 숙제를 한 거 같아 정말 기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 정석순 성도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 공격이 부당한 공격이든 정당한 공격이든 상관없이 공격 앞에 섰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 인격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 주제가 바울의 자기변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며 스스로 변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더 큰 공격이 주어질수록 복음의 향기가 계속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복음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에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원리와 가치를 분명히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은혜, 능력, 기쁨인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공격당할 때마다 복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더 심한 공격을 받으면 더 깊은 복음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 바울의 어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부드럽고 유순한 태도로 대했던 바울이 매우 강경하고 엄한 어조로 교훈합니다.

육체의 본성과 타락한 습성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하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1~2절).

이 방법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 편지에 쓰인 어조처럼 그들을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로 변화되어야 바울이 그들과 마주할 때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6절).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징계와 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대로’라는 말은 헬라 시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행한다는 표현입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을 비난합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꾼 것을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둘째, 추천서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그 사람을 보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추천서는 예루살렘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말합니다. 고린도교회에 예루살렘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근거로 영적 권위를 내세우고,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추천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셋째,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구제헌금모금 때문에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간교한 속임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대면하여 볼 때는 유순하지만 편지로는 강경한 것에 대해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인격, 일, 계획 등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육체를 따라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옛사람의 타락한 습성입니다. 타락한 죄가 만든 무서운 영적 실체이자 습성입니다. 보이는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에까지 스며있는 죄악 된 습관입니다. 육체의

본성과 타락한 습성이 바로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이 만든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4-5절).

바울은 겉으로 나타난 자신에 대한 공격보다 그들이 매사에 시비를 걸고, 문제 삼고, 불의하게 공격하는 생각의 틀이 영적인 위협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타락의 증거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대로 한다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 생각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래야 육체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이 생각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갇혀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은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만, 정신과 생각은 자유롭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여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생각의 요새는 수많은 이론과 사상으로 흘러 내려왔는데 한 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주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생각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서운 믿음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무신론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무신론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형성됐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에 근거한 진화론에서 나오는 궤변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소중함을 말살시켜 버리는 물질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은 말할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회의론이라는 궤변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고민 자체가 귀찮은 것입니다. 이 심각한 회의론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해서 생겨난 궤변이자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상 일어난 모든 생각의 일관된 흐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요새 뒤에는 이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이성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박사는 자신이 아는 것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인간 지성 최고의 가치는 자신이 아는 것은 진리의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의 기능입니다. 진짜 이성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는 것, 과학으로 증명된 것, 경험한 것, 자신이 생각한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견고한 요새에 갇혀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성과 사상으로 는 안 됩니다.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요새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로잡고, 복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 한 성에 반역자들이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이 와서 다시 성을 정복합니다. 요새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포로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정복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성으로 생각하면 요새가 무너지면 끊임없는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14면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공격적 무신론자들이 지난 40~50년 동안 일반인들의 머리에 주입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성경은 신화라는 일을 수 있으나 지식

의 근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존 C. 레녹스는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 명예교수다. 또한 과학, 철학 및 종교의 중간지대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 기독교 측의 변론가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사이며 저술가이다. 예술, 수학, 철학 분야에 박사학위가 있으며 생명윤리 분야의 석사학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학과 기독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의 저서로 한국에서 번역된 것은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최초의 7일〉, 〈박뱅인가 창조인가?〉,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 등이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신론자, 구도자뿐 아니라 기독교인까지 공유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복음주의의 기독교측의 정리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무신론자들의 질문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그의 책에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레녹스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할 때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책을 긴급하게 출판하였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을 허락하셨을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제기하는 질문이다. 90쪽의 짧은 책 속에 성경적, 과학적 관점으로 이 팬데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한다. 이 책의 내용을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tEaaeZCQuIs>)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답을 갈구한다. 예배를 통해 목사님들은 각 상황에 대해 적절한 영적인 설명과 대답을 즉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전문지식과 연관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분야 기독교 전문가들이 나서서 성경적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권위 있는 지적, 영적 해석과 방향 제시를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성도가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답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수학자로서의 그의 견해를 담은 〈2084: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라는 책이 2020년 6월 출판되었고 번역이 기대된다. 이 책은 조지 오웰의 〈1984〉가 1940년대 후반 30~40년 후의 암울한 미래를 그렸던 것을 패러

디해서 그 100년 후인 2084년의 세상 풍속을 예견한다. 현재 AI의 발전단계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중요해질 미래를 제시하는 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레녹스의 책들은 이 시대에 시의적절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레녹스의 반대편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도킨스이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부터 옥스퍼드 교수생활을 시작했고, 1995년부터 대중에게 진화론을 쉽게 설명하는 임무를 맡은 석좌교수직을 2008년까지 수행하면서 공격적 무신론자로서 기독교 공격의 선봉에 선 사람이다. 그의 출세작인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의 동력은 유전자가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이기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과학저널에 실린 내용을 모은 것이 아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재미있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 가능한 것만 과학적인 명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통 조상에서 종 분화가 일어난다는 다윈의 주장이나 이기적 유전자가 살아남아 진화를 주도한다는 도킨스의 주장은 과학적 방법으로 반대설명이 불가능해서 과학적 주장이 될 수 없다. 이 책에서 도킨스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가설로 설정해 놓고, 그 가설의 기반 위에 또 다른 불확실한 것을 다시 주장하는 사기에 가까운 서술기법을 책 전반에 걸쳐 수행한다. 공격적 무신론의 선봉장 역할을 한 공로로 인해 진화론을 주장

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필독서로 추천하는 책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과학저널에서는 그가 주장한 유전자의 이기성이나 밈(meme)의 개념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가 2006년 〈만들어진 신〉에 이어 최근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올해 2월 1일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그는 생물학계의 석학이 아니다. 그가 저술한 책들의 제목처럼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공격적 무신론자가 그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가보다는 그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합치하느냐가 그 주장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 그 출판사의 기존 출판물들로 그 출판사의 세계관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총돌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불필요하게 양보할 유혹을 느끼며 실제로 지나치게 양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묵인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기독교인이 이 시대 쟁점이 되는 사회 각 분야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묵상: 우리는 **노헤미아처럼 성벽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 공격적 무신론자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맡아 쌓고 지킬 성벽은 어떤 부분일까?**

크리스천을 위한 성상담

부부 성관계에도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관계를 할 때마다 따뜻한 대화나 정서적인 친밀감은 나누지 않고, 성적 필요만 채우는 것 같은 상황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성관계를 하는데 제가 도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성관계를 꼭 가져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성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부부 관계의 전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분명 결혼만족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규식 교수에 따르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이해하는 인간의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너지와 선물이며,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채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성관계를 서로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데 결혼 연차가 늘어나면서 부부 성관계의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한다. 성관계의 빈도와 낭만적인 측면에서 신혼 때와는 다른 소원함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다. 성관계가 소원해지고 어색해지면 부부 관계의 불만족이 증폭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의 성관계에도 노력과 경청이 필요하다. 낮아짐, 배려, 친절, 봉사 등도 필요하다. 배우자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즐거움이나 친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성관계 맺는다는 푸념이다.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수용해준 이후 심리적으로 처지 비관, 배우자에 대한 분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우울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아내 혹은 남편이 될 수 있고, 희생만 당한 우울한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부부의 성관계는 자존감, 결혼에 대한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서로 오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브렌틴은 부부의 성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감정과 정서와도 밀접하게

교류하는 깊은 수준의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기대, 불편한 점을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성적인 끌림이 없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부부 사이라도 성에 관한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를 마련한다면 수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부부세미나에 참석하든지 부부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 대화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난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가 심한 거절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부부의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나눌 필요가 있다. 또 부부의 성관계가 즐겁고 정열적이 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좋다. 성관계 후에는 칭찬을 해줘라.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들

의 육체가 열릴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고 배려해주시기를 바란다. 성은 서로의 삶을 주고받는 영혼육의 깊은 연합이기에 서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부부는 1년에 2~3번 정도 특별한 데이트를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다. 일상에서 친밀함을 느끼도록 대화하고 잔잔한 스킨십도 주고받는다. 성적인 친밀감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다. 평소 정서적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보기를 바란다. 부부의 침실 분위기를 바꾸어보고, 두 사람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황국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군대는 선교의 황금어장!

군선교팀은 최후의 보루!

군대는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이 시대 청년들을 전도하는데 군대보다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병사도 있고, 장교도 있고, 여군도 있다. 정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선교지가 바로 군대다. 군대가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면 군선교팀은 최후의 보루다. 최전선에서 군인들을 전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 군선교팀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을 받은 군부대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8일에는 국방부에서 온누리교회에 감사장을 주기도 했다. 군선교팀 대표장로 안상현 장로와 육군훈련소 군종참모 김영호 목사가 뜻깊은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안상현 장로
(군선교팀 대표장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다.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팬데믹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대답을 군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세대다. 그 청년들이 그나마 마음에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다. 어떤 이들은 요즘 군대는 예전에 비하면 복무기간도 줄고, 군기도 많이 약해져서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막상 내 자녀가 군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군대는 군대다. 그 심리를 어떤 부모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나는 2015년 군선교팀 담당이기도 했던 공동체 담당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요량으로 논산 육군종합훈련소 전도집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갓 입대한 수천 명의 장병이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다.

“아!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겠구나!”,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첫사랑이 있었지!”

그 엄청난 감동이 내가 군선교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다. 그때부터 군선교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지난 2월 17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마스크 2만장을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전도집회 및 세례,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이하 영화 서서평), 제대자학교, 해의 파병부대지원, 사관학교 후원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만큼 수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예배에서 있었던 일화다. 육군사관학교장이 졸업생들에게 크리스천 리더로서 천부장과 백부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다. 한 명의 크리스천 지휘관이 보여준 믿음의 영향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 한번은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장병들에게 영화 서서평을 상영했을 때 일이다. 담당 군목께서 기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다. 흐르는 눈물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자리를 함께했던 군선교팀도 먹먹해지는 가슴을 달래며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엄청난 감동 속에서 군선교 사

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역이 일시에 중단됐다. 그러나 멈춤의 시간은 잠깐이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의 사역은 코로나19 이후 더 바빠졌다. 현장 사역보다 미디어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영상예배를 위한 장비를 군종목사들에게 지원하고, 동시에 영상예배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현재 모든 군부대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지원사업도 했다. 올해는 CGNTV와 협력해서 드림은 셋 톱박스도 지원한다. CGNTV가 출시한 기독교 OTT ‘풍당’의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서 군종목사단과 민간 군선교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기독교 OTT 풍당은 장병들의 양육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군선교팀은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해서 훈련소부터 장병

들 한 명 한 명을 양육관리 하는 사역에 집중하려고 한다. 4월경에는 군가족을 위한 맞춤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도집회에 앞서 군인의 아내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예정하고 있다. 조국을 지키는 남편의 조력자로서 소명을 감당하는 군인 아내들을 위한 응원영상을 제작해서 위로하고자 한다.

나는 청년 전도의 답을 군대에서 찾았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군선교 사역은 밀지는 장사다. 사역이 아무리 커지고 많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제대 후에 온누리교회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군선교팀이 영화 서서평 상영과 전도집회를 통해서 청년 22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군선교팀은 개최하는 집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장병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권면한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장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기도를 따라한다.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갑갑한 심령을 가진 이 땅의 청년 25만 명이 매년 입대한다. 그래서 군대를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독교 외에도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있다. 다른 종교에게도 군대는 황금어장이다. 논산훈련소에는 이단도 들어와 있다. 이단들이 틈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육군훈련소에서 온 편지

충성! 청년 선교의 전초기지, 민족복음화의 요람 육군훈련소 군종참모 중령 김영호 목사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군훈련소 역시 엄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도 훈련병의 복음 전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밝은 것처럼, 지금 험겨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살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군훈련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장병이 연

제라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초극단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소 요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져서 힘겨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훈련병들에게는 마스크가 충분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병 및 간부들에게는 보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온누리교회에서 사랑의 마스크를 보내 주셨습니다. 지난 성탄절 전후해서 마스크 1만장을 보내주시고, 이번에 또 마스크 2만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성

도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스크는 훈련병들과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훈련병들의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끼면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장병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12만 명의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군을 사랑하시며, 복음 전도를 열정적으로 행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군선교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안전하고 건강한 장병을 육성하겠다는 훈련소장님의 말씀도 전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 김영호 목사(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그 사랑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1. 입양이 복음이다 2. 행복한 우리집 3. 선한울타리지역

배 아파 낳았던 가슴으로 낳았던 ‘똑같은 내 새끼’

고봉익·성정은, 이단열·김정아 성도의 행복한 우리집

“엄마하고 나하고 뽀뽀하면은 아빠도 나하고 뽀뽀하세요

엄마하고 나하고 뽀뽀뽀뽀뽀 아빠도 나하고 뽀뽀뽀뽀뽀

일곱빛깔무지개 만들어가는 우리집은 다정한 비둘기 가족

사랑의 웃음꽃이 호호하하하 행복을 만들어 가요~♪”

동요 ‘행복한 우리집’의 가사다. 가사만 들어도 저절로 행복해진다. 여기, 이 동요처럼 행복한 가족이 있다. 주인공은 고봉익, 성정은 성도네(분당B공동체)와 이단열, 김정아 성도네(한강공동체)다. 고봉익, 성정은 성도네는 자녀가 세 명이다. 늦게 얻은 막내딸로 인해 요즘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다. 이단열, 김정아 성도네는 아들만 둘이다. 두 아들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두 가족에게 공통점이 있다. 입양가족이라는 점이다. 고봉익, 성정은 부부는 막내(셋째)를 입양했고, 이단열, 김정아 부부는 두 아들을 모두 입양했다.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내 새끼

성정은 성도는 어릴 때부터 입양을 생각했다. 교회 유치부 교사로 섬기며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보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꼭 손을 내밀어야지’라고 생각했다. 남편 고봉익 성도와 교제할 때도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확고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막상 결혼하고, 육아하고,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입양을 까맣게 잊게 되더라고요.”

성정은 성도가 다시 입양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2017년이었다.

“우연히 미혼모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한 미혼모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도제목으로 나눠줬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입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셋째 입양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를 입양해야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불안과 부담을 아예 지울 수는 없었다.

“우리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고민되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깨우쳐주시더라고요. 입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해주는 부모, 좋은 부모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아이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입양 공부도 했다. 사회선교



고봉익, 성정은 성도 가정(위), 이단열, 김정아 성도 가정(아래).

부 제이홈(입양가족네트워크)의 도움이 가장 컸다. 여러 책과 세미나,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입양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배웠다. 두 자녀와 양가 부모님들께도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셋째 입양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다행히 양가 부모님들과 두 아이가 입양을 잘 받아들여 줬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하셨는데 금방 받아주셨고, 친손자와 다름없이 예뻐해 주십니다. 첫째는 막내동생을 누구보다 예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엄마의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동생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대하고 있고요.”

성정은 성도는 지금도 막내 하린이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한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빨리 품에 안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가 낯설어하면서 위탁모한테 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입양했으면 좋았을 걸,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낯설어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헤어짐이 없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기도와 다짐을 했습니다.”

하린이는 새 가족에게 잘 적응했다. 아니,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정말 잘 자라고 있다.

“한 번 더 안아주고, 눈 맞춰주고, 뽀뽀해주고, 손잡아주는 사소한 스킨십만으로도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뒤늦게 막내를 키우려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하린이를 먹이고, 안고, 재우고, 씻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딸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이는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야 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낳았던, 가슴으로 낳았던 하린이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내 새끼입니다.”

성정은 성도가 조심스레 정인이 사건을 꺼내면서 눈물을 쏟아냈다.

“정인의 모습이 잊히지 않을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입양 가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입양의 문이 원래도 좁았는데, 그 사건 이후 더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교회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

합니다. 입양을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면 편견과 불안을 버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고아를 돌보는 것은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진짜 행복

이단열, 김정아 성도네는 개구쟁이 아들 둘 키우느라 체력이 달리고 힘이 든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의 육아가 정말 힘들었다.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삼촌도, 할머니도 못 만났다. 하지만 두 아들로 인해 너무 행복하다. 더 일찍 입양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다.

국내 입양의 70%가 여아 입양인 현실에서 이단열, 김정아 성도의 남아 입양은 흔한 일이 아니다. 남자 아이를 입양한 이유가 있을까?

“딱히 성별을 가리지는 않았습다. 그냥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입양 교육에서 만난 입양 선배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예쁜 남자아이들이 부모를 찾지 못해서 해외로 입양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남자아이에게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그렇게 첫째 남자아이를 입양했다. 너무 좋았다. 그래서 둘째 아이도 남자아이를 입양했다. 입양한 아이가 벌써 5살, 3살이다.

“입양한 아이를 내 자식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키워보니까 차이가 전혀 없더라고요. 가족이 뭐겠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사소한 일상을 함께 하고,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혈연관계가 가족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단열, 김정아 부부는 두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것을 아이들을 입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우리 가정 율타리 안으로 들어와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짝 찬 느낌이 듭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정말 행복합니다.”

김정아 성도에게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고민이다.

“입양 관련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고, 서서히 가정 밖 사회에 발을 내디딜 나이가 되니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이 친구들이나 부모님 중에서 분명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입양 가족들이 많을 것입니다.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입양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코로나19, '말씀'으로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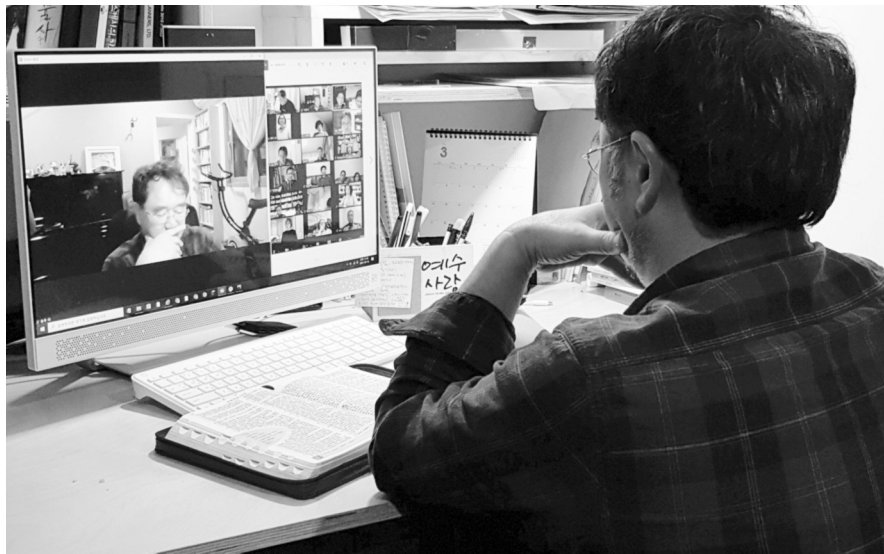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지난가를 난생처음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졌다. 위급상황을 넘겼다는 감사와 안도감은 잠시, 앞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동시에 하나님이나 나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병실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적이다가 유튜브를 켰다. 주일예배 동영상에 올라와 있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순찰하는 말씀이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느 2:17).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이 수치스러움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들었다. 문득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광고가 떠올랐다. 내 마음에 ‘양육과정을 듣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들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순 식구들에게도 함께 가스펠프로젝트 강의를 신청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행히 예상보다 퇴원이 빨랐다. 그 덕분에 퇴원한 날 저녁부터 가스펠프로젝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누가 들어왔을까?’라는 기대



이승우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강의를 듣고 있다.

감으로 강의 화면을 켜다. 줌 화면에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만날 수 없던 공동체 지체들의 얼굴을 마주하니 무척 기쁘고 반가웠다.

지금까지 많은 양육과정을 해왔지만 성경공부를 온라인(Zoom)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 좋아하는 집사님들, 새로 알게 된 분

들, 우리 딸까지 화면으로 대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실시간으로 듣는 목사님의 강의는 더욱 긴장감 있게 들렸고, 참석자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코로나19 시대 양육과정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에 은혜가 가득했다. 가스펠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화요일이 되면 가슴이

설렸다.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이었다. 거친 풍랑 속 배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단숨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목상했다. 물 위를 걸어오시며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나는 이제껏 풍랑을 이기기 위해 배를 튼튼히 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이 세상이라는 물 위에서 강력한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능력도, 종교 생활도, 기적도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한 발 내딛는 믿음이 필요하다. 내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한 주는 ‘어디 물 위를 걸을 만한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냈다. 가스펠프로젝트의 모든 강의가 은혜였다. 매주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삶을 소탈하게 나눠주시는 허원희 목사님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나눠주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따스한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다. 기대와 사모함으로 연결된 온라인 강의 그 자체가 공동체였다.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흐르는 성령의 시간이었다.

/ 이승우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코로나19, '나눔'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후원자 간증

나는 온누리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나의 신앙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왔다. 나는 대구에서 청과물 도매업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오창화 집사님이 운영하는 진원무역에서 청과물을 납품받고 있다. 오 집사님은 회사를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고,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며, 미혼 모를 돕는 일에도 힘쓰고 계신다. 크리스천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삶은 나에게 신앙을 되돌아보게 했다. 한번은 오 집사님이 거래처를 차례로 방문하신 적이 있다. 우리 사업장에도 오셔서 직원들의 손을 잡고 돌아가며 기도해주셨다. 예수 믿는 사업장이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든 가리지 않고 나누고, 기도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부부사랑방에서 만난 한 부부도 있다. 이 부부는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직장을 따라 대구로 내려왔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대로 부부사랑방을 만들어 삶을 나눴다. 부부의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랑방원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경험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 번 더 온누리교회를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2월 대구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대구를 나



온누리교회에 다닌 적 없는 정현달 집사(대구동신교회)가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며 알게 된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고 있다.

갈 수도 없었고, 들어오는 것도 극도로 꺼리던 그때를 말이다. 2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약 4개월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았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폭발적인 확진자 소식이 들릴 때마다 웬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영업장들은 폐쇄되기에 이르

렀다. 개인적 감염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의 어려움과 영업장 폐쇄의 두려움까지 겹치면서 참 힘든 시기였다. 교회를 갈 수 없게 되면서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민 끝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CGNTV 채널로 온누리교회 영상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당시 온누리교회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공감소비운동’과 미자립교회에 영상예배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고 있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노력을 보면서 참 선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CGNTV로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NGO 더멋진세상을 알게 됐다. 온누리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은 알았지만 NGO 활동도 한다는 것이 새로웠다. 교회가 직접 나서서 세상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돕는다면 이보다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래서 나도 매월 일정금액을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썩 좋지 않지만,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지구촌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물질후원만이 아니라 기도의 후원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셔야 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많은 믿음의 후원자들이 생겨나 고통받고 있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도한다. 온누리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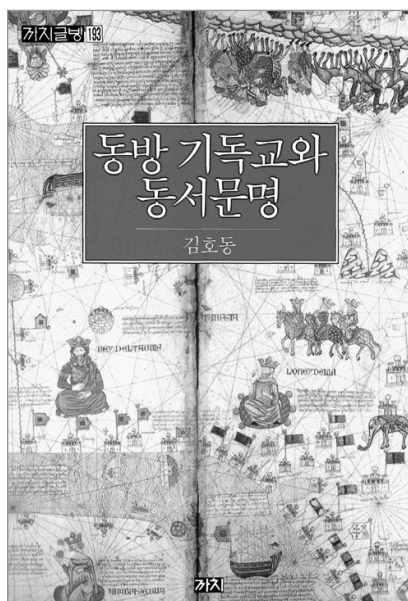
/ 정현달 집사(대구동신교회)

이보다 값진 일이 또 있을까



책 읽어주는 목사

도전 정신과 약자의 영향력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김호동 저 | 까치 | 15,000원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중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조금씩 늘고 있다. 중앙아시아 북음화에 사명을 가진 교회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을 위한 서적도 발행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문화에 입문할 수 있는 서적들이 많다. 나는 그중에서 중앙아시아의 교회사를 다룬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이라는 책을 추천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저자인 김호동 교수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교수이다. 하버드대학에서 중앙아시아 위구르 역사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이다. 국내에서 중앙아시아학회를 발족하면서 인문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에서는 ‘동방 기독교’와 ‘동서양의 세계사’를 다룬다. 서양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배워온 우리가 동서양의 역사에서 중앙아시아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좋은 기회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세계사만으로는 중앙아시아 교회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동서양의 세계사와 시대, 지역별로 교회 역사를 열거한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등지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동방 기독교는 동방정교회가 아니라 아시아교회를 말한다. 아시아교회는 다양하다.

이 책에서는 네스토리안에 대한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413년 에베소 공의회와 433년 칼케돈공의회라는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의거해서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동방 기독교의 역사가 약자의 역사, 도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동방 기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중심이 아닌 주변인의 입장에서,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서 정통이 아닌 이단의 입장에서 마음이 쓰였다. 역사가 힘을 가진 자에 의해 변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이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현실 세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 로마제국에서 쫓겨나 새로운 지역으로 강제이동해야 했던 네스토리안들은 가는 곳마다 약자였다. 이단자로 낙인찍혀 페르시아로 갔을 때에는 이미 그곳에 터를 잡은 배화교와 싸워야 했다. 7~8세기에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압제 앞에서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다. 중국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 몽골에서는 샤머니즘과 각종 위협과 싸워야 했다. 인도에서는 힌두문화 속에서 천민 계층처럼 살아야 했다. 이 약자의 역사에서

12~13세기 중앙아시아 기독교가 부흥한다. 몽골 제국의 서슬 퍼런 칼날 속에서도 아시아 기독교 인구가 증가했다. 네스토리안들은 배화교, 이슬람, 샤머니즘에 저항하고, 적응했으며, 현지에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15세기 네스토리안들이 쇠퇴의 역사를 걷는다. 전염병, 강력한 제국의 출현, 이슬람의 도전, 교회와의 단절로 인해 흔적만 남게 된다. 지금은 중앙아시아 곳곳에 남겨진 네스토리안 공동묘지의 흔적만 남아있다.

중앙아시아의 고고학적인 발굴과 연구가 진행될수록 오랜 도시 곳곳에서 교회공동체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벽화, 비석, 토기 파편에 남아있는 빛바랜 기록이 지금은 이슬람 땅인 그곳에도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지금은 러시아,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교회와 가정교회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마주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는 동방 기독교 같은 도전 정신과 약자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최명현 선교사
(화성M센터)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조선의 자주독립 의지를 알리다!

3.1만세운동과 일제 만행 세계에 알린 인물



미국에 3.1만세운동과 일제의 만행을 알린 앨버트 테일러(오른쪽), 메리 테일러(왼쪽) 부부.

1919년 3월 1일 ‘3.1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제사회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1910년 한일강제합병 전후 외신은 ‘한국은 현대화 과정에 대한 요구에 귀를 닫아온 은둔의 왕국’, ‘600년 이상 독립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부터 일본의 지역으로 편입됐다’는 비관적이고 단편적인 보도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 국제사회의 시각이 극적으로 변한다. 미국의 한 지역지 3월 22일자 신문에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싸움’이라는 기사가 실린다. 미국 유타주 지역신문 4월 3일자 신문에서는 3.1 독립선언문 전문을 게재한다. 3.1운동과 더불어 전국적인 만세운동과 일본의 학살이 전 세계로 타전되며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외국인인 있다. 1919년 3월 1일 AP통신 임시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물던 앨버트 테일러다.

앨버트 테일러는 금광 기술자인 아버지를 따라 1896년 조선 땅을 찾았다. 금광사업과 무역상 등을 했는데 AP통신 서울 특파원을 겸임하고 있었다.

1919년 2월 앨버트 테일러 부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아들의 요람 아래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한다. 그 종이가 바로 독립선언문이다. 일본 경찰이 세브란스 병원 인쇄기로 인쇄한 독립선언문을 찾으려고 하자 수간호사가 안전한 미국인 병실에 숨겨놓은 것이었다. 앨버트 테일러는 독립선언문은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독립선언문이 앨버트 테일러의 동생 빌 테일러 구두 뒤장에

숨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독립선언문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그 이후 앨버트 테일러는 선교사들과 함께 일제의 만행을 막기 위해 참혹한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 현장을 취재해서 국제사회에 알렸다.

1942년 일제에 추방당한 앨버트 테일러는 1948년 사망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혔다.

앨버트 테일러를 종로구 행촌동의 ‘딜쿠샤 전시관’(앨버트 테일러 가족에서 만날 수 있다. 딜쿠샤 전시관은 앨버트 테일러가 서울에 거주할 당시 건축한 서양식 가옥이다. 3.1운동을 대표하는 유적지로 손꼽힌다. 관람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주소: 종로구 행촌동 1-88, 1-89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마지막 원수’

누가 죽음의 권세를 탈출하라
아무도 그 손아귀를 못 벗어나지
모든 고뇌와 애수의 원천으로
인생무상의 큰 바다를 이루지

두려워하며 미워하는 불청객이나
그림자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지
겁에 질려도 무시해도 상관없이
때가 되면 가차 없이 채어 가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겉으로는 담대하나 속으로 겁내지
너와 나 그 안에서 떨며 살아가지
나와 너 거기서 울고 웃으며 살지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하였으니
이미 받은 승리의 그날을
드디어 환희 가운데 보리

*고린도전서 15:26



지난 3월 7일 용산구 보광동에 마련한 울타리(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시설)에서 선한울타리사역 첫 예배를 드렸다.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지원사역

사회선교부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선한울타리사역’을 시작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만 18세 이후 양육시설(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퇴소하게 된 이들을 말한다. 지자체에서 주는 소정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내쫓기듯 시설을 나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지원사역이다. 주거지원(울타리), 멘토링, 신

양훈련, 자립훈련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돕는다. 사회선교부 제이홈(임양가족네트워크)이 주관해서 섬긴다.

오창화 집사(제이홈 팀장)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은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와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선한울타리사역은 사람과 사회에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보호

종료아동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사역”이라며 “뜨거운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한국에서 선한울타리사역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교회는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7곳(분당샘물교회, 지구촌교회, 남서울은혜교회, 광민셀교회, 예수향남교회, 합성감리교회)이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1년 장로사관학교 개강

피택장로 47명, 4월 10일~10월 16일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성경적 장로 리더십을 세우는 2021 장로사관학교가 4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장로사관학교 대상자는 피택장로 47명이다.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온누리교회와 Acts29, Upside-down Leadership, 바람직한 장로상, 금홍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미래 사회변화 대처, 온누리 양육체계, 온누리 사역이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피택장로들은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장로고시 등을 거치고 난 다음 오는 12월 4일(토) 장로장립식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된다.

/ 정현주 기자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생 모집

3월 21일~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된다. 매주 온라인(Zoom)으로 조별 모임도 한다. 3월 21일 저녁 7시에는 온라인(Zoom)으로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수강신청은 4월 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온누리 5

분 전도 최고의 행복 기본전문, 온누리 5분 전도 최고의 행복 전문, 온누리 5분 전도 최고의 행복 도표그리기, 온누리 5분 전도 최고의 행복 전도지, 상황별 접촉점과 반대질문(1,2,3) 등을 주제로 강의와 조별 나눔이 이어진다. 회비는 1만5천 원(교재, 필독서, 전도지 구매비용 포함).

문의: 010-5219-8707(서빙고)

010-9001-6243(양재)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17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4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은 부모와 자녀가 더 친밀해지고, 건강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감정 알기 및 표현하기’ 등을 주제로 10주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 2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2647-5435

젊은부부학교 51기 참가자 모집

4월 10일~5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

젊은부부학교 5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젊은부부학교에서는 ‘성경적 결혼관’, ‘피플피플’, ‘자기예로의 여행’, ‘남녀차이와 부부대화’ 등을 주

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4주차에는 수료식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이다. 3월 30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10-6685-0812

제8기 ‘WHY 무슬림?’

4월 11일부터 6주 동안 유튜브 강의

이슬람을 바로 알고,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8기 ‘WHY 무슬림?’이 오는 4월 11일부터 6주 동안 유튜브로 진행된다.

제8기 ‘WHY 무슬림?’에서는 이슬

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9064-6080

한국어선교 교사 모집

한국어선교학교에서 한국어 선교 교사를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한국어선교학교(1~6기)를 수료했거나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성도이다.

한국어선교 교사로 선발되면 한국어를 몰라서 취업 및 한국 생활 전반에 곤란을 겪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3개월 동안 주 1회, 온라인(Zoom)으로 일대일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된다.

문의: 010-8948-1215

두란노아버지학교 156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6기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매주 조별모임도 있다. 회비는 10만 원이다.

문의: 010-5478-6867

잘 가르치는 교사, 재무심리 테라피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뉴노멀 시대 교회학교와 교수법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잘 가르치는 교사’ 세미나가 4월 10일과 17일 오전 9시 온라인(Zoom) 실시간 강의로 진행된다. 이외용 교수(전 국민대 교수, 교회문화연구소장)가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교회학교’, ‘말이 통하는 3V 전달법과 교수법’, ‘PD같은 교사, 교사같은 PD’를 주제로 강의한다.

뉴노멀 시대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교회학교 교사나 교역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6만 원이다. 4

월 5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성경적 돈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가치관을 점검하도록 돕는 일일특강 ‘재무심리 테라피’가 4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Zoom)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정우식 대표(NPT연구원장, 한경대 겸임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4만 원이다. 4월 19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7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 ‘풍당’ 앱 다운로드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거나 CGNTV가 출시한 기록 OTT 플랫폼 ‘풍당(Fondant)’(이하 풍당) 앱을 다운로드 받은 성도들이 구입한 제품의 가격을 10%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할인을 받으려면 현황증이나 인증사진을 제시하거나 핸드폰에 설치된 풍당 앱을 두

란노서점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할인 이벤트는 4월 3일까지, 풍당 할인 이벤트는 3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된다. 할인 이벤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의: 02-796-2310

세례 간증



/ 김영진 성도(김포공동체)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아이 갖기를 원했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난임센터를 다니면서 6번의 인공수정을 했는데 매번 실패했다.

2014년 남편이 베트남으로 발령 나서 3년 동안 해외생활을 했다. 다행인 것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웬지 모를 든든함이 생겼다는 것이다. 베트남 온누리교회 출석하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임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다. 귀국해서 다시 난임센터를 찾았고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시작으로 4번째 성경통독과 <생명의 삶> QT, 중보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마치고 나면 오전이 지나갔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나고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을 옮겨서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을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6개월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배에 직접 주사를 놓으면서 새벽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약을 먹어야 했다. 배가 점점 멍으로 뒤덮였고 엉덩이가 돌처럼 부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배아를 이식하고 일주일 후부터 임신테스트기를 해봤다. 희미하게 두 줄이 보였다. 그 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임신테스트를 했고 점점 진해지는 두 줄을 볼 수 있었다. 그 기쁨도 잠시 3주쯤 되었을까 하혈을 했다. 걱정이 많았지만 다음날 피검사를 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뻐다.

하지만 앞으로 2차, 3차 피검사가 있어서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2차 피검사까지는 수치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아 낙심했다. 하지만 5일 후 3차 피검사하는 날 수치가 올라갔다. 태명을 개똥이로 지었다. 우리 개똥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기 꼭 지켜주시리라 믿었다. 초음파로 작은 아기집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과 임신확인서를 들고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 아이가 벌써 생후 27개월이 되었다. 사랑한다는 말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애정표현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한다고 말한다. 아이가 눈을 맞추고 부모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웃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있다. 유아세례를 받으며 권이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 책을 먹으라> 독후감



/ 박길식 성도(남북성결교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큐티스쿨에 참여하면서 필독도서를 추천 받았다. 총 4권 중에서 한 권을 골라 독후감을 내야 하는데 나는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저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손자가 성경을 읽는답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공원에 앉아 평소와 다르게 침묵하며 성경을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손자가 ‘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이 예화를 통한 저자의 일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되었다. 지금껏 수많은 시간 성경을 읽는다면 시간을 보낸 내 모습이 떠올랐다. 성경을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있음에도 필자의 표현처럼 ‘사탄의 계획에 빠진 것처럼’ 경건한 무관심을 이어왔다. 앞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를 달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에서는 ‘묵상하다(meditate)’의 의미를 새롭게 표현했다. 묵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기’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사야서에서 ‘사자가 먹이를 움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하가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나도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워온 사람이라 저자가 말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다. 우리집 강아지도 빠다귀 하나를 주면 온몸으로

로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구석진 곳으로 혼자 들어가 빠다귀를 먹는다. 행여나 빠다귀를 빼앗길까 봐 경계하면서 온몸으로 씹고 삼키고 핥기를 반복한다. 천천히 오랫동안 혹은 며칠 동안이나 빠다귀 맛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낸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온 온몸으로 느끼며 혹시나 이 귀한 것을 빼앗길까 지키기 위해 경계하며 며칠에 걸쳐 혹은 잠자는 중에도 음미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묵상을 경건하게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다. 묵상이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일부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단지 성경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읽음과 동시에 깊이 내면화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나의 인격 속으로 성경이 제대로 스며들어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 분별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또 내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며,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싶다.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 간증



/ 정진우 형제(허브대학부)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는 혼자 생활하는 나그네 같은 느낌을 받았다.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는 현실에 무기력해졌다. 그러던 중에 들려온 바이블 아카데미 소식은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이 없는 게 아쉬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참가했다.

“우리가 어떤 마음 발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2학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샘솟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바이블 아카데미 조별나눔에서 은혜와 감사를 체험했다.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를 수강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별나눔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바이블 아카데미 조별

나눔을 하면서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다. ‘과연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기쁜 마음으로 조별 나눔을 할 수 있었다. 강의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서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보기도하면서 유대감도 쌓았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끄셨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싶다.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김영호, 권나현 부부(열린교회)

제2의 회심

젊은부부학교에 처음 올 때는 큰 뜻이 없었다. 아내가 바뀌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기대만 가지고 억지로 끌려왔다. 그런데 젊은부부학교가 진행되는 4주 동안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었다. 강의와 나눔, 워크숍 등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 유익했다. 꼭 나를 위해 커리큘럼이 짜인 것 같았다. 집중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꼭 들어있었다. 4주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섬겨주신 젊은부부학교 사역자, 스태프, 조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젊은부부학교의 프로그램은 원가정을 보게 하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바로 알게 하고, 어떻게 부부생활과 사랑 탱크를 채워 나가야 하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도와준다. 그중에서 이 재진 목사님의 강의가 가장 큰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며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또

원죄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과 생각이 가정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부의 연합’ 시간에는 “부부가 살아야 정이 산다”는 말의 의미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납득했다.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가 연합해야 하는지, 부부의 연합이 자녀와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참 많이 배웠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피폐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했을지 아찔하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과연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하며 제2의 회심을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의 생각과 행동 변화를 위해 따라왔는데 이 모든 교육이 내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다. 참 감사했다.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한 가정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젊은부부학교 문의: 010-6685-0812(총무)

장로칼럼

신우회의 사명



박공 장로
(신용산공동체)

최근 내가 간사로 섬기고 있는 신우회 한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험값에 팔리게 되었다. 나는 그 회사 사장님을 위로하기 위해 신우회 회장님과 함께 방문했다. 그 사장님은 오래된 중형 기업을 경영하던 건강한 크리스천 기업인이셨다. 사장님이 회사가 이렇게 된 경과를 설명했다.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팀 챌러의 〈일과 영성〉 서문에 쓰인 알스도프의 말이 떠올랐다.

“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추진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처럼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개인과 회사, 그리고 산업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과 회의가 밀려왔다. ‘친히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서 성공의 길을 열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

긴 세월 직장선교에 헌신했던 신우회 회원들에게도 남 일 같지 않은 마음 아픈 일일 것이다.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일어설 방법을 찾는 일 또한 신우회의 사명이다.

우리나라 신우회 활동이 지금은 거의 소멸 지경에 와있지만 1990년 전후만 하더라도 왕성했다. 당시 온누리교회도 일대일 제자양육, 경배와 찬양, 큐티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직장선교를 지원하고자 1995년 직장신우회 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LG그룹 본사 신우회와 현대그룹 본사 신우회 예배에 교역자 설교 지원과 신우회 회원들을 위한 일대일 제자양육을 지원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앙생활 세미

나와 직장선교 전략세미나, 직장인 리더십 포럼 등을 개최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적도 있다. 그러나 교회적인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직장선교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직장신우회 협력위원회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1997년 하반기부터 1998년까지 교회 내 직장선교훈련학교, 직장사역학교 등을 차례로 개설해서 사역자 양성에 열심을 기울였다. 나는 1997년 4월 30일 택시회사 사장단 17개사가 기운선교회를 창립하고 간사로 섬겼다. 지금까지 많은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초빙강사로 설교를 해주셨다. 우리 신우회는 온누리교회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신우회 모임만의 특징이 하나 있다. 1부 예배 후에 2부에서 업무에 대한 토론 및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신우회 회원들이 동일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현상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미래 시대는 플랫폼의 발달로 일의 방식이 다양화될 것이다. 교회 밖 사회현장에서는 일의 방식이 곧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변혁적 문화관을 구현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올해부터 우리 신우회는 비대면 예배를 보완하기 위해 임원진들이 회원사업장을 순회하며 예배와 말씀을 나누기로 했다. 그것이 흠어진 교회로써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을 얻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됨을 보여줘야 한다. 직장 동료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나가는 사명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우회의 사명이다.

선교칼럼

전도는 사명이자 소망



박해나 선교사
(C국 선교사)

나는 20년 넘게 외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며 선교를 해왔다. 학생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기 위해 늘 고민했다. 전도폭발 훈련문, 사역리 책자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하곤 했다. 또한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전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온누리전도학교를 통해 내 생각이 완전히 깨졌다. 온누리전도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배웠다.

2년 전 오랜 시간 머물렀던 선교지에서 비자 발적 출국자로 한국에 나오게 되었다. 사역지에 머물고 있는 남편을 기다리며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늘 해오던 일이 전도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역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국에 있는 제자로부터 온누리전도학교를 소개받았다.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오후에는 현장에 나갔다. 기차역이나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주로 다녔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훈련받은 대로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선교지에서도 매일 하던 전도였는데 뭔가 달랐다.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잘 숙지한 다음 말씀을 전도대상자들에게 나누면 이상하리만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불신자들에게도 쉽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었다. 참 신기했다. 〈최고의 행복〉 전도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았다. 성령님께서 온누리전도학교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온누리전도학교의 귀한 사역과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외국에도 알릴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 퍼지기 전에 애틀랜타 한인교회의 여전도회 헌신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 그때 온누리전도학교에서 사용하던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한국에서는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누었다. 집회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과 전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 선교담당 젊은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열고 싶어하셨다. 우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전도학교를 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맞춰보기로 했다. 전도학교를 준비하던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남편과 나는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다.

지금 나는 하늘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말씀 사역과 전도를 하고 있다. 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져서 다시 선교지로 갈 날과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내 가방에는 늘 〈최고의 행복〉 전도지가 담겨 있다. 이 전도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인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 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전도지를 보면 든든한 마음이 든다. 전도지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온누리전도학교 모든 과정을 수강하면서 매주 소망했던 것이 있다.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쓰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꼭 온누리전도학교를 수강해서 복음 나눔이 생활화되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신다. 전도가 한국 교회의 큰 소망이 되리라 확신한다.

온누리전도학교 문의: 010-5219-8707

신앙에세이



김미정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요즘 기독 OTT ‘풍당’ (이하 풍당)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유튜브로 말씀 영상을 볼 때는 원래 목적보다 ‘허리 절대 안 아프게 하는 5분 운동법’ 같은 말씀과 무관한 영상들이 눈에 띄어 보게 될 때가 많았는데, 기독 OTT 풍당은 좋은 양육 프로그램과 말씀들만 볼 수 있어서 결길로 빠지지 않아서 좋다.

올해로 목회자가 된 지 17년 차가 된다. 그동안 목회자로서 설교와 강의, 상담 등으로 쏟아내는 시간이 많았다. 채울 틈 없이 쏟아내기만 하다가 빈 강통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풍당으로 말씀과 강의들을 들으면서

마치 개인 교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니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다녀왔다. 코로나19 이전 같으면 복지관에서 음악도 배우고 운동도 했는데 요새는 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심심하실까 싶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강의와 운동을 Zoom으로 참여하면서 집안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운동도 하셨다. 온누리교회 순예배 덕분에 Zoom도 쓸 줄 아는 신식 할머니가 되어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서 기뻐하셨다.

어머니 집은 바로 산 밑에 있어서 창밖을 보면 나무들이 울창하게 보인다. 봄에는 새싹이 연하게 올라오고, 여름에는 푸르름이 짙고, 가을에는 단풍이 참 예쁘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들만 보인다.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전에 피정(靜)했던 한 수도원 생각이 났다.

오래전 작은 수도원에 여성사역팀이 함께 피

정을 갔었다. 딱 이즈음이었다. 수도원 앞에 예쁜 의자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 언덕이 있고 나무들이 보였다. 그곳에 앉아있는데 한 수녀님이 지나가시다가 인사를 하며 말을 걸어오셨다. 나는 수녀님께 인사하며 “여기 참 예쁘네요”라고 말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히 보이던 때라 초여름이나 가을쯤 왔다면 예뻐졌다고 생각하며 다시 질문했다.

“어느 계절이 제일 예뻐요?”

그러자 수녀님이 대답하셨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다 그때에 맞게 예쁘지만 저는 지금 이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이파리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봤더니 언덕의 나무들 너머에 사람들이 다니고, 굴뚝에 연기도 피어오르는 작은 마을과 길이 보였다. 울창한 나뭇잎, 화려한 단풍잎들이 있었다면 보지 못했을 광경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 없이 많은 만남도, 양육스쿨도, 식사 자리도 사라졌다. 풍성하던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람들을 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전 7:14).

하나님이 풍성한 잎을 주셨을 때는 함께 기뻐할 시간이다. 그러나 잎이 다 떨어진 것 같은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그 잎들 너머에 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계획을 세우던 것을 내려놓고, 나무 너머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생각의 전쟁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이후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반항, 의심, 부정, 불순종,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많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바로 견고한 요새에 갇혀 있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죄의 포로 된 생각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한 가지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가 진정한 권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진짜 권위냐 아니냐가 증명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권위자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참된 권위인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권위를 잘못 대항해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한대의 자유와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은 너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규칙이 자신들을 얽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 없어서 따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탄의 꾀임을 받았습시다. 최초의 인간은 규칙이 존재하는 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하다면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복돋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말하면 심중팔구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예수님 믿고 구속받기 싫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에게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이 생각이 견고한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참으로 자유한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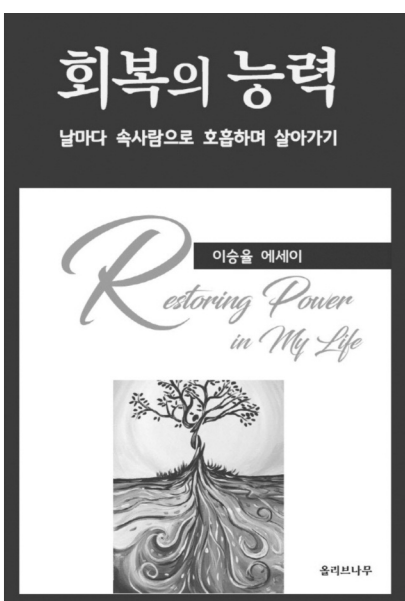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각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될 때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참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영혼들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십

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하지 않고, 멈추고, 그만둘 수 있고, 버릴 수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절제할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않을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지만 그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멈추고, 버리고, 그만둘 수 있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멈출 수 없다면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중지시킬 수 없다면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전쟁에서 성을 정복한 사람에게 포로가 되듯이 우리의 생각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스펔전 목사님은 이것을 ‘복된 포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세를 가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참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꼭 읽어야 할 책

희망, 열정, 비전, 헌신!



《회복의 능력》
이승울 저 | 올리브나무 | 18,000원

“코로나19 팬데믹 재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모든 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책 《회복의 능력》 맨 첫 장 저자의 말에 쓰인 문장이다. 저자가 남긴 인사처럼 이 책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 회복을 선물한다.

《회복의 능력》 저자는 자신이 일평생 겪어온 좌절과 방황, 절망의 시간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만난 ‘회복의 하나님’을 간증한다. 또 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겪게 된 가족의 어려움을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희망의 하나님’을 노래한다.

책 《회복의 능력》은 ‘회복의 여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줄인 말이다. 이 책의 제목처럼 곳곳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는 회복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할 네 가지 관문으로 ‘희망’, ‘열정’, ‘비전’, ‘헌신’을

설명한다. 이 네 가지 주제로 책의 내용을 정리했다.

1부 ‘희망-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소리’에서는 회복을 ‘나를 낮추고 버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바라고 희망하는 이상을 담아내는 복된 향아리’라고 정의한다. 코호트 격리되었던 청도 대남요양병원에 계신 저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가며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했다.

2부 ‘열정-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에서는 젊은 시절 방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었던 저자의 야구 인생론이 펼쳐진다. 또한 온갖 역경을 거쳐 사업을 탄탄대로에 올려놓기까지 기독교실업인으로서의 창업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척 흥미진진하다.

3부 ‘비전-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전략적 로드맵’에서는 놀라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미래 가치와 희망자산에 관

한 이야기가 매력적이다.

4부 ‘헌신-작은 나’를 바쳐 영원한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일’에서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기독교실업인으로서 ‘성경적 경영’이 무엇인지 안내한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구원의 맥락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글의 끝에서 데이브드 브룩스의 책 〈두 번째 산〉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날마다 속사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저자의 열정과 비전, 헌신이 담긴 신앙고백이 독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포당’과 함께하는 개국 16주년 이벤트

‘포당’ 콘텐츠 시청하고,
CGNTV 개국 16주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참여 기간 3월 25일(목) - 4월 15일(목)



‘포당’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포당 Fondant’을 검색하세요



문의 02-792-0691

● 하나, 포당 클래스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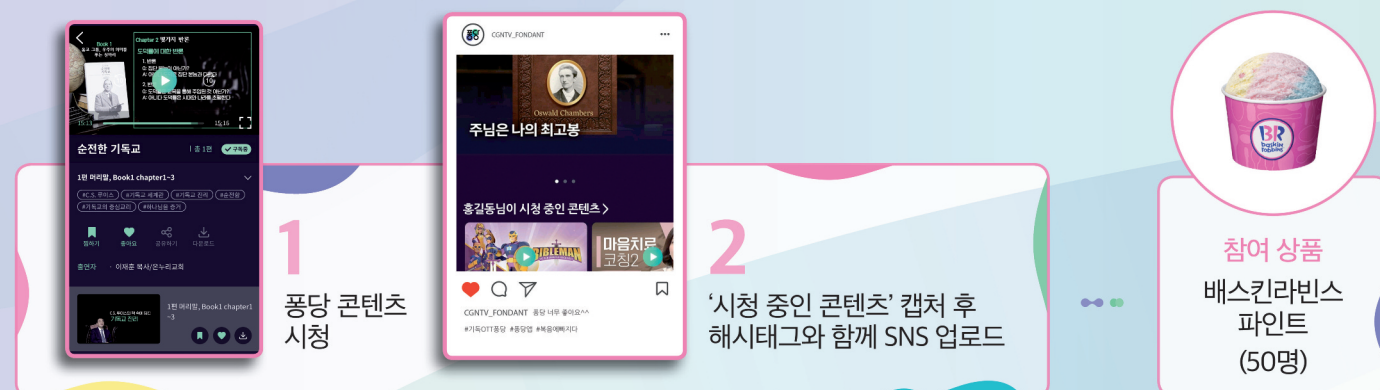
참여 방법 이벤트 클래스를 수강하고 ‘수강 후기’ 남기기

*이벤트 클래스에 있는 3개의 콘텐츠를 모두 시청해야 후기 작성이 가능합니다.



● 둘, 포당 SNS 이벤트

참여 방법 메인화면의 ‘시청 중인 콘텐츠’ 페이지를 캡처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필수 해시태그 : #복음에빠지다포당 #기독교OTT포당



모바일에서 ‘다모음’ 앱 다운받아 간편하게 CGNTV 후원하기
‘다모음’ 앱 설치 후, CGNTV 후원하기 선택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 R S 060-705-0000
후원문의 02-796-2243